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담당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배포일자	2023년 9월 7일(목) 총 3매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 박진수 ☎858-9702</li> <li>담당자 김형준 ☎858-9704</li> </ul>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멸종위기야생동물 새호리기 자연의 품으로 - 사람에게 구조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올해 3월 계양구 계산동에서 구조한 새호리기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새호리기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조류로 한국에서는 드문 텃새이자 봄가을에 드물게 볼 수 있는 나그네새다.

지난 3월 30일 계양구 계산동 민가에서 어린 새호리기를 보호하고 있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인계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어미를 잃은 채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새호리기(이하 초롱이)를 발견해 자택에서 먹이 공급과 체온 유지를 시키는 등 기력을 회복시켰다.

하지만 자연환경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성장해 야생에서 활동할 정도의 비행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사람과 함께 자라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해 사람이 직접 먹여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결국 적절한 자연 복귀 시기를 놓친 초롱이는 신고인의 보호 속에 겨울을 보낸 후 올해 3월 30일에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인계됐다.

초롱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먹이를 먹여주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그릇에 담아 보여줬고, 훈련이 며칠 지속되자 먹이를 직접 먹여주기 이전에 스스로 먹이를 섭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섭취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야외 계류장으로 옮겨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비행 훈련과 먹이 공급 이외에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차 적극성을 회복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이 사냥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훈련들과 다르게 손질되지 않은 모습의 먹이를 사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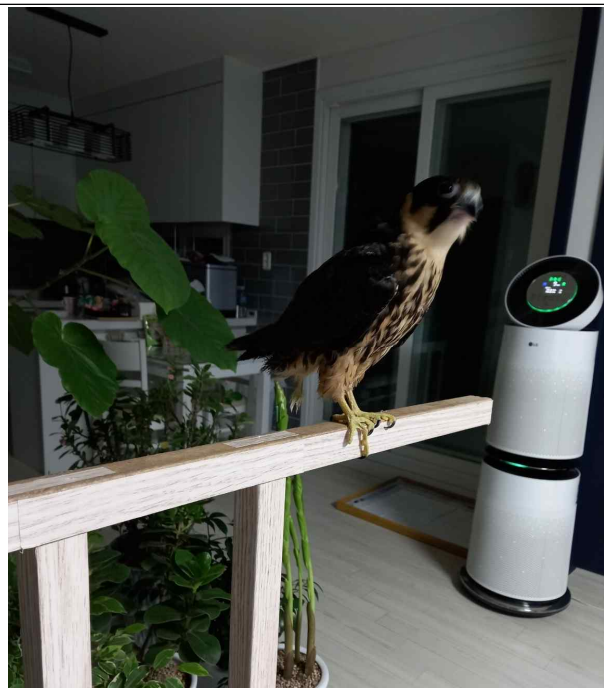
먹는 것은 훈련이 어려웠는데, 지난 8월 8일 새호리기 아성조(성조가 되기 전 시기의 새)가 새롭게 구조되면서 해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초롱이보다도 잘 날지 못했던 새호리기 아성조는 야외 계류장에서 합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잘 날아다니게 됐으며 손질되지 않은 모습의 먹이도 금방 사냥하여 먹는 모습을 보였다.

합사한 직후에는 초롱이도 새호리기 아성조를 따라 사냥 능력과 비행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으며 2마리 모두 자연복귀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지난 31일 인천 연수구 청량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진수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홀로 남겨진 야생동물 새끼나 알을 발견한 경우 선부르게 구조하지 말고 일단 멀리서 두 시간 정도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관찰한 후에 어미가 없음을 확인 후 구조해야 한다”며 “구조 후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에 연락해 적절한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 ]



새호리기(초롱이)



새호리기 아성조



자연으로 돌아가는 초롱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새호리기 아성조